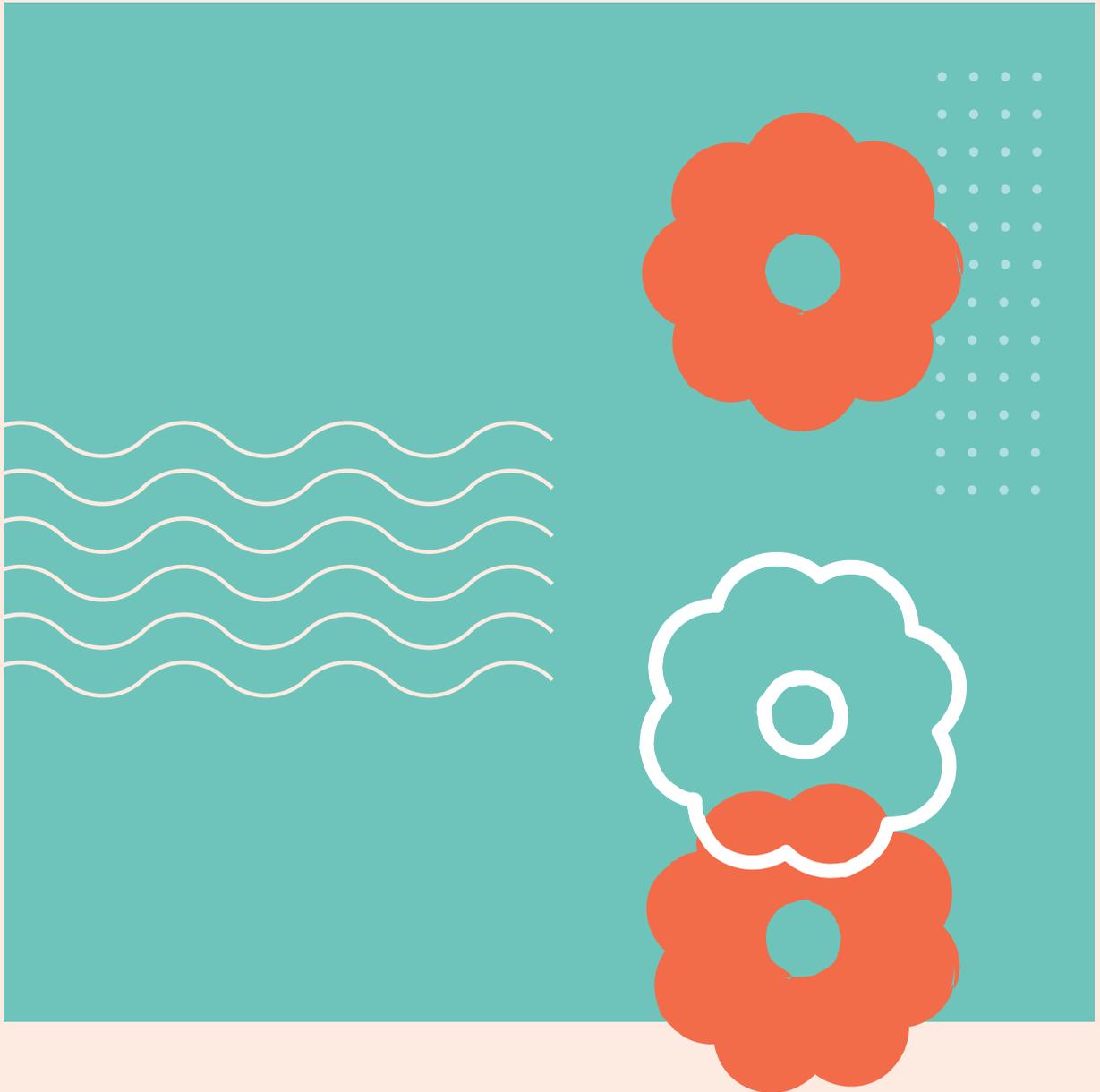


봄 바람

Bom Wind
Bom Wish



CONTENTS

01	발간사	임인년 새해에도 불어라, 봄바람~
02	보머 태니지먼트 리포트	피알봄은 애니메이션 캐릭터들의 어벤져스 안나, 품바, 버즈, 알라딘, 신데렐라 ... 싱크로율 100%
04	보머 인터뷰 1	2021 '뉴 보머' 신유정 과장
06	슬기로운 신입생활	2022년 목표는 전문성, 체력, 신뢰
08	보머 인터뷰 2	봄.봄.봄 - 봄과 봄이 만나 봄 어느 날 "셀 워 커피?"
10	캐틴 게스트	문윤희, 송재훈 기자 나는야 비전공자 ... '성취감과 재미' 두 토끼 잡아 헬스케어 산업에서 비전공자 기자로 살아남기
14	보머들의 인생여행지	코로나로 지친 당신, 떠나라!
18	봄 컬처, 보머 DNA	기업문화로 자리잡은 복지 프로그램들
20	피알봄 소식	# 1. 건강 유튜브 채널 '랜선진료소' 지난 5월 개설 # 2. 최하나 부장, '2020년 기자들이 뽑은 헬스케어 홍보인상' 수상
21	2021 올해의 보머	'미스터리어스 박'과의 점심, 기대해 주세요

발행인 전은정
 편집인 김자영
 편집고문 이필재
 기획, 취재 김해원, 박은빈, 신지훈, 양효진, 이정인
 디자인 지가을

임인년 새해에도 불어라, 봄바람~

저는 한 해를 마무리하는 루틴이 몇 가지 있습니다. 다음 해 다이어리를 제작하고 봄 송년회 일정을 잡는 등의 공식적인 업무도 있지만, 나름대로 차분히 한 해를 정리합니다.

코로나 2년차인 올해는 그 어느 해보다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저녁 약속이 거의 없다 보니, 비로소 '저녁이 있는 삶'을 맛볼 수 있었죠. 워킹맘의 저녁은 집안일로 바쁜 시간이지만, 아이들과 지지고 볶으면서 새로운 충전이 됐습니다.

한편 재택근무를 하더라도, 프로페셔널한 업무 성과를 내야 하는 직업인으로서 상당히 어려운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업무 환경이 회사만큼은 아닌 데다, 매일 마감해야 하는 업무와 미팅은 코로나 이전과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모든 보머들이 함께 겪은 어려움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준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지난해 '봄바람' 창간호는 신입 직원의 글쓰기 교육을 의미 있는 방법으로 해 보자는 야심 찬 취지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자연의 선물인 봄바람처럼, 어느덧 모든 보머들이 손꼽아 기다리는 의미 있는 프로그램이 됐습니다. 임인년 새해가 시작되기 전 보머들의 지난 한 해를 담은 추억을 공유하게 되어 기쁩니다.

사보팀 여러분,
 코로나 2년차에 우리 모두 익숙해지고 안정 되었듯이, 봄바람 2호가 창간호보다도 재미 있게 진행된 것 같아 고마운 마음입니다. 진행 과정이 쉽지만은 않았겠죠. 봄바람 아이템을 기획하고, 취재하고, 예쁘게 디자인하느라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마음으로부터의 감사를 전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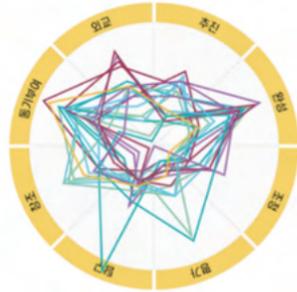
2021년 12월 15일

대표 **전은정**



피알봄은 애니메이션 캐릭터들의 어벤져스 안나, 폼바, 버즈, 알라딘, 신데렐라 ... 싱크로율 100%

글 박은빈 · 신지훈



자신의 재능을 발견해 강점으로 더욱 강화하도록 해주는 테스트가 있다. MBTI, 애니어그램 등 각종 성격 유형 테스트들이다. 올해도 이들 테스트는 큰 인기였다.

올들어 보머들은 MBTI 등 강점 및 성격 검사 분석을 발전시킨 커리어 개발 도구 '테니지먼트' 검사를 실시했다. 피알봄 구성원은 과연 어떤 강점이 있을까? 외교, 추진, 완성, 조정, 평가, 탐구, 창조, 동기부여 등 총 8가지 영역의 최강자는 각각 누구일까? <봄바람>이 애니메이션 캐릭터와 매칭해 봤다.

피알봄 대표 캐릭터는 겨울왕국 '안나'

최강의 두 영역 : 동기부여, 완성

보머들은 모두에게 자상하고 따스하며 배려심이 넘치는 성격의 소유자이다. 겨울왕국의 안나는 동기부여와 완성이라는 강점을 지닌, 피알봄 구성원들과 일맥상통하는 캐릭터이다. 그녀는 극중 모험을 이끌며 예상 밖의 상황이 터져도 겁에 질려 숨거나 불안해하지 않는다. 도리어 바로 무기가 될 만한 것을 찾아내고, 필요하다면 선제공격을 감행해 끝내 목표를 달성한다.

이미지 출처: [https://en.wikipedia.org/wiki/Anna_\(Frozen\)#/media/File:Anna_Frozen.png](https://en.wikipedia.org/wiki/Anna_(Frozen)#/media/File:Anna_Frozen.png)



김명숙 실장은 라이온킹의 '폼바'

강점 영역 : 동기부여(26%)



김명숙 실장은 보머들 중 동기부여 최강자로 구성원들의 상황이나 감정을 이해하는 데 능하다. 구성원들의 각종 어려움을 세심하게 살핀다. 그녀는 디즈니 캐릭터 중 가장 성공적인 조력자인 라이온킹의 폼바를 연상시킨다. 폼바는 다른 사람들을 격려해 팀을 움직이는 캐릭터인데, 심바를 독려해 왕으로 만든 1등 공신이기도 하다.

이미지 출처: 나무위키 '티몬과 폼바'

유기환 대리는 토이스토리의 '버즈'

강점 영역 : 완성(25%)



피알봄 완성 영역 최강자인 유기환 대리는 적극적으로 팀원들과 협력해 완성도 높은 결과물을 얻어내는 것으로 정평이 있다. 점잖고 진지한 성격의 소유자인 토이스토리의 버즈와 싱크로율이 매우 높다. 버즈는 팀원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당황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목적 달성에 몰입하는 캐릭터.

이미지 출처: 나무위키 '버즈 라이트이어'

양효진 사원은 '신데렐라'

강점 영역 : 외교(23%)



양효진 사원은 뛰어난 외교 역량을 발휘해 문제를 쉽게 풀어간다. 평소 친구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위기 상황에서 도움을 받아 어려움을 헤쳐 나가는 캐릭터 신데렐라를 떠올리게 한다. '신데렐라'는 어려서 부모님을 잃었지만 다양한 친구들과 두루두루 친해 관계 네트워크가 좋고 소통에도 능하다.

이미지 출처: 나무위키 '신데렐라'

최하나 팀장은 주토피아 '주디'

강점 영역 : 평가(23%)



최하나 팀장은 문제점을 발견하면 해결하는 것에서 기쁨을 느끼는 독특한 타입이다. 문제 내면의 문제까지 찾아 해결 아이디어를 방출하고야 마는 해결사이다. 문제 이면에 숨겨져 있는 것들에 호기심이 발동하는 모양이다. 이렇듯 해결사 역할을 톡톡히 수행하는 캐릭터는 주토피아의 주디이다. 목표를 이뤄내겠다고 마음먹으면 끊임없이 노력한다.

이미지 출처: 나무위키 '주디 홉스'

김은영 팀장은 '알라딘'

강점 영역 : 조정(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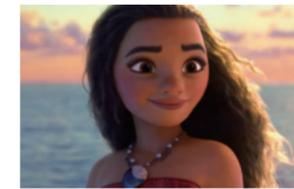


김은영 팀장은 '역대급' 조정 능력을 발휘해 순발력 있게 위기상황에 적절히 대응한다. 많은 어려움에도 기지를 발휘해 유연하게 대처하는 캐릭터 알라딘이 딱이다. 난관에 부딪힐 때마다 포기하기는커녕 오히려 주변 상황을 이용해 기필코 목표를 달성한다.

이미지 출처: 나무위키 '알라딘'

김자영 팀장은 '모아나'

강점 영역 : 추진(19%)



김자영 팀장은 남다른 추진력으로 피알봄의 행동대장으로 통한다. 임원 급이 편집인을 맡던 <봄바람>의 시즌2 편집인도 그녀 몫이다. 모아나 역시 목표가 생기면 무모하리만큼 도전해 바로 진행에 돌입하는 캐릭터. 말보다 행동이 빠르고 결정이 나면 적극적으로 달려들어 목표를 달성한다.

이미지 출처: 나무위키 '모아나'

박정선 사원은 쿵푸팬더의 '시푸'

강점 영역 : 탐구(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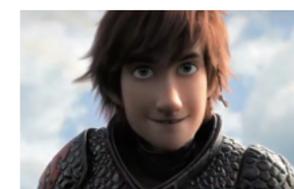


박정선 사원은 문제를 깊이 파고들어 본질을 파악할 때 즐거움을 맛보는 과다. 자기성찰, 자기발전의 시간을 적절히 배치해 업무에 반영하는 데 능하다. 쿵푸팬더의 '시푸'가 꼭 그렇다. 깊이 있는 사고를 통해 방향과 목표를 설정하고 설계한다. 포(팬더)가 관찰 결과 먹을 것만 있으면 숨겨진 재능을 발휘하는 것을 발견하기라도 한 듯이.

이미지 출처: 나무위키 '시푸'

이정인 사원은 드래곤 길들이기의 '히킵'

강점 영역 : 창조(22%)



이정인 사원은 새로운 각도에서 문제를 바라봄으로써 피알봄의 아이디어뱅크 역할을 톡톡히 한다. 그렇다. 창조야말로 그녀의 강점이다. 항상 열린 상상력으로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안해 혁신을 이뤄내는 캐릭터 드래곤 길들이기 '히킵'의 판박이다. 히킵은 결국 일족의 일생일대 문제인 드래곤과의 전쟁을 마무리해 족장으로 인정받는다.

이미지 출처: 나무위키 '히킵 호렌더스 해덕 3세'

2021 '뉴 보머' 신유정 과장

아직은 느리지만 꾸준히 달려 완주하는 보머 되고파

'PR이란 견고한 짜임새에 가치를 더하는 일'

글 박은빈



“지난 3월 말 봄에 조인해 지금 5팀에서 일합니다. 헬스케어 PR은, 마콜에서 인턴으로 시작했고 엘리슨파트너스코리아를 거쳐 지금까지 만 5년 정도 했어요.”

올해의 '뉴 보머' 신유정 과장은 “헬스케어 PR 분야에서 여전히 배울 것이 많다”고 말했다.

Q1. PR을 시작하게 된 동기나 계기가 뭔가요?

대학에서 커뮤니케이션학을 전공했습니다. 커뮤니케이션학과의 4개 트랙 중 광고홍보를 더 깊이 공부했고, PR 동아리를 한 것이 계기가 돼 헬스케어 PR 전문 에이전시에서 인턴을 하게 됐어요. 학교에서 접하지 못했던 거의 무궁무진한 업무를 경험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려움도 적잖이 겪었어요. 어느덧 헬스케어 PR 퍼슨 5년 차가 됐으니 어쩌면 PR 외길인생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군요.

Q2. 그동안 다양한 프로젝트를 맡으셨을 텐데, 특별히 기억에 남는 PR 경험을 소개해 주시죠.

사실 잘한 것보다 어려웠던 게 더 기억에 남아요. 인턴을 거쳐 컨설턴트가 된 지 얼마 안 돼 환자 수기 공모전 행사를 맡았습니다. 사실 컨설턴트로 승진했다고 해서 짠 하고 갑자기 모든 업무를 잘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전부 처음 하는 일이다 보니 어떤 업무부터 해야 할지 감이 없었고, 전체

그림도 잘 안 들어왔습니다. 전국 병원을 대상으로 환자 수기를 모집하는 프로젝트였는데, 제가 공모전 창구로서 공모전 포스터부터 각 병원에 전달해 협조를 요청해야 했어요. 프로젝트가 끝날 때까지 고군분투했는데, 행사가 마무리될 무렵 공모전 시상식에서 글로만 보았던 수기를 보낸 환자들을 직접 만나 이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었죠. '그래, 내가 이분들을 위해 이 행사를 진행했지!' 헬스케어 PR의 궁극적인 목적에 대해 생각해 볼 기회였고, 느낀 바가 많은 프로젝트였습니다.

Q3. PR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는?

유연성입니다. 유감스럽게도 저에게 가장 부족한 자질이죠. 업무 특성상 루틴한 업무를 진행하기도 하는데 이 루틴한 일도 하다 보면 흔히 변수가 생기더라고요. 예를 들어 어렵게 인터뷰를 어레인지했는데 인터뷰이 쪽에서 갑자기 할 수 없다고 하거나 보도자료 배포 일정이 변경되거나 하는 상황이죠. 또 업무 특성상 여러 분야의 직업군과 커뮤니케이션을 하는데, 유연하게 생각할수록 좋은 대처 방법이 잘 떠오르더라고요. 경험이 부족했던 주니어 시절엔 앞서 맡았던 업무 상황과 다를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라 고민한 적이 많습니다.

처음 겪는 문제와 맞닥뜨렸을 때 '이렇게 해 볼까? 이렇게도 할 수 있어'하며 유연하게 대처하니 오히려 문제가 더 잘 해결됐어요.

유연성은 업무의 완성도를 높여줄뿐더러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데도 필요하다고 봐요. 어떤 상황에서는 반드시 이렇게 해야 한다 하고 스스로를 압박하다 보면, 그렇게 못했을 때 스트레스를 반복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처리할 땐 주변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는 것도, 계속 배워나가려는 자세라는 점에서 유연성이라고 봐요.

Q4. 힘들지만, PR이라는 직업에 계속 종사하게 만드는 동력이 뭔가요?

재밌는 정보를 새로 접하는 걸 정말 좋아합니다. 예를 들어 유튜브를 보다 궁금한 게 있으면 더 찾아보고 새롭게 알아가는 것을 굉장히 좋아해요. 헬스케어 PR 프로젝트를 하다 보면 암, 만성질환 등 여러 질환을 담당하게 되는데 질환에 관해 알아가는 게 흥미로워요. 그런 질환이 어떻게 생기고, 어떻게 치료하는지 알아가는 즐거움이 있죠. 정말 다양한 지식을 접하게 되는데, 전문가 수준의 지식은 아니지만 이렇게 여러 분야에 대해 새롭게 배우는 게 저는 재미있어요. 물론 헬스케어는 조금 딱딱하고 재미없다고 하는 분도 있어요.

Q5. 슬럼프를 극복하는 법, 나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이 뭔가요?

일단 잠을 꼭 잡니다. 업무 모드로 바뀐 뇌에 이렇게 쉴 틈을 줘 체력을 보강한 뒤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도 하지만, 일상에서 사소하면서도 간단한 변화를 시도합니다. 예를 들어, 출근길에 늘 라떼를 마셨다면 오늘은 다른 메뉴를 먹어보는 거죠. 항상 다니는 길을 두고 다른 길로 가보면 기분 전환이 돼요. 슬럼프의 주기, 체력이 떨어지는 주기를 연장하는 데는 운동이 필요해요. 운동할 땐 운동 자체에만 집중하게 돼 끝나고 나면 개운합니다. 저는 요가랑 필라테스가 잘 맞았어요. 업무시간에 오래 앉아 있다 보면 체형이 틀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필라테스가 체형 교정에 도움이 됐어요. 심한 편두통도 많이 완화됐죠. 요즘엔 새로운 걸 시도한다는 생각으로 폴댄스를 하는데, 새로운 방식으로 몸을 써 보는 재미가 있어요.

Q6. 10년 후 자신의 어떤 모습을 기대하시나요? 계획이나 목표는 뭔가요?

그때도 여전히 부족한 점이 많은 '미생

未生)같은 모습일 거예요. 그렇더라도 후배들에게 필요한 도움을 주는 좋은 선배가 되고 싶습니다. 계획으로는 보건학에 대해 전반적으로 공부하고 싶어요. 헬스케어 PR 이 저와 맞는 것 같고, 흥미로울뿐더러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도 필요한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업무를 떠나서는, 또 다른 삶의 활력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Q7. "PR이란 □이다"라고 할 때 □를 어떻게 완성하시겠어요?

'견고한 짜임새에 가치를 더하는 일'입니다. 자료를 만들 땐 메시지에 힘이 담기도록 근거를 치밀하게 구성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 일이 가치 있고 주목이 필요하다고 설득할 수 있어요. 그러기 위해 이게 왜 가치 있는 활동인지 스스로 납득하는 과정을 거치고, 어떤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려고 하는지 늘 생각해요.

유정 과장에 관한 다섯 가지 TMI

- 1. 일주일의 휴가가 주어진다면?**
시간과 돈에 구애 받지 않는다면 오늘은 뉴욕, 내일은 파리지엔, 모레는 런던으로 하루에 한 도시씩 정복해 보고 싶어요.
- 2. 삶의 질을 높인 제품은?**
재택 필수템 '커피 머신'
- 3. 최근에 방문한 식당 중 추천하고 싶은 곳은?**
해방촌에 있는 이탈리아 레스토랑 '노아'. 바람이 살랑살랑 부는 초여름 저녁에 찾은 후 남산 둘레길을 따라 내려오는 코스를 추천합니다.
- 4. 버킷리스트는?**
와이너리에 가서 오랫동안 시간을 보내고 싶어요. 직접 포도를 수확해 와인으로 만드는 과정을 체험해보고 싶어요.
- 5. 나를 세 단어로 표현한다면?**
편안하면서도 예리한 상담가, 완주하는 거북이, 수리 (나의 반려묘) 누나

2022년 목표는 전문성, 체력, 신뢰

글 김해원

신입들의 보머 생활을, 신입 구성원들의 단체 특방을 통해 문답 형식으로 재구성해 봤다.

신입 구성원으로서 바라본 헬스케어 업계는?



박은빈

건강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어 전문성이 중요하고, 자료로 작성한 모든 문장에 근거가 필요하다.

정보의 정확성이 중요한 분야인 만큼 단어 하나도 신중하게 써야 하고, 책임감이 따른다.



양효진

진입장벽이 상대적으로 높고 전문성이 필요하다는 것이 어려운 점이자 동시에 장점이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질환으로 고통 받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헬스케어는 환자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치료 환경을 개선할 수 있어 공익적 성격을 띤 매력적인 산업이다.



이정인



김해원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이나 프로젝트는?



박은빈

기자간담회 등 오프라인 행사를 직접 발로 뛰면서 준비했던 것.

환우 카페 모니터링. 두 번의 프로젝트였는데, 환자들의 어려움과 절실함이 예상보다 크게 와닿아 헬스케어 PR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됐다.



양효진

유튜브 콘텐츠 제작이 주요 프로그램이었던 프로젝트. 콘텐츠 기획부터 촬영, 편집까지 수고로운 과정의 연속이었지만, 그래서 더 기억에 남는다. 많은 시청 부탁드린다.

처음 프로젝트 비딩을 따냈을 때. 업무가 미숙해 프로젝트에 많은 기여를 하지는 못했지만, 팀원들과 팀장님, 상무님과 함께 머리를 싸매 준비했다. 그렇게 고생해 성공적인 결과를 거둔 것도 기쁘지만, 그 과정에서 논리적으로 설득하고 내용을 체계적으로 구조화하는 방법을 어깨너머로 배운 값진 경험이었다.



이정인



김해원

2022년 목표는?



박은빈

한층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걱정과 고민을 하느라 주저하지 않고 기회를 잡는 것이 내 삶의 가치관이자 2022년 목표이다.

모든 의욕과 열정은 체력에서 나오는 것 같다. 2022년에는 운동을 꾸준히 해 체력을 길러 모든 일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



양효진

전문성을 갖춘 PR 퍼슨으로 성장하는 것. 업무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오피스 프로그램 스킬부터 헬스케어 산업 군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까지 아직 배워야 할 것이 많다. 올해보다 더 성장한 프로페셔널 보머가 되고 싶다.

모든 게 새롭고, 모르는 것 투성이인 정신 없던 한 해였다. 새해엔 점잖게 여유롭게 업무를 조율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사람이 되고 싶다.



이정인



김해원

PR 퍼슨으로서 이루고 싶은 최종 꿈은?



박은빈

어떻게 성장하고 싶은지, 아직은 구체적으로 그려지지 않는다. 프로젝트를 꾸준히 진행하면서 PR퍼슨으로서의 정체성을 찾아나갈 계획이다.

사람 대 사람으로서, 또 내가 제공하는 자료를 통해 신뢰 받는 사람이 되고 싶다. 더불어 주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되고 싶다.



양효진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두루두루 잘 지내는 재밌는 사람이 되고 싶다. 업무를 할 때 특히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땐 강단 있고 쿨한 직업인이 되고 싶다.

내가 하는 PR 활동은 물론 나 자신에 대한 PR도 능숙하게 할 줄 아는 사람이 되고 싶다. 또 자극적이진 않지만, 사람들의 기억에 오래 남는 PR을 만들어내고 싶다.



이정인



김해원

박은빈, 이정인, 양효진, 김해원님이 나갔습니다.

봄.봄.봄 - 봄과 봄이 만나 봄

어느 날

“쉴 위 커피?”

글 이정인

‘90년대생이 온다. 문화, 경제, 정치를 막론하고 한국 사회는 지금 새롭게 출현한 이 세대와 어울리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n0년대생, MZ세대 등도 이들을 이해하기 위해 동원된 세대론이다. 이렇게 숫자와 알파벳으로 이들을 대해 정의 내려 보지만 성과는 신통치 않다. 때로는 되레 ‘그들’과 ‘나’를 구분 짓는 장벽으로 작용할 뿐이다.

누군가를 제대로 이해하고 싶은가? 그렇다면 알파벳 세대론에 갇히지 말고 넌지시 커피 한 잔을 권해 보라.

보머들이라고 이 미지의 세대가 두렵지 않을까? 어쩌면 이들도 선배들에게 궁금한 게 많은데 가까이하기엔 너무 먼 당신이었는지도 모른다. 그래서 <봄.봄.봄>이 마련했다. 리더십&인턴 보머 간 Q&A. 더 가까워지고 싶다면 봄바람 2호의 이 특집 기사를 읽고서, 짐짓 안 읽은 척 세대를 뛰어넘는 커피 한 잔을 함께 해 보라. “쉴 위 커피?”

리더십 보머가 인턴 보머에게 묻다

인턴을 하면서 PR 업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게 됐나요?

구지은 헬스케어 전문 PR회사다 보니 의학 용어, 약가 제도 등 생소한 용어와 처음 접하는 정보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어렵고, 팀장님과 선배님이 안 계셨다면 제 뇌세포는 다 사라졌을 거예요.

김유나 전문성과 꼼꼼함이 요구되는 분야 같아요. 문장 하나하나에 대해 레퍼런스를 확인하는 것을 보고 당초 예상보다 어려운 분야라고 생각 했습니다.

윤해인 신속성, 정확성, 그리고 창의성이 필요한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제약 분야가 어렵고 생소하다 보니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는 것이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특히 캠페인 아이디어 구상이 쉽지 않았어요.

PR봄에서의 첫 회사 생활, 어땠나요? 특히 좋았던 점은 뭔가요?

구지은 새롭고 다양한 경험을 하는 게 그저 재밌고 신기합니다. 처음 참석한 팀 회식이 가장 기억에 남아요. 선배님들이 너무 스윗하셔서 놀랐습니다;-)

김유나 회사라 분위기가 차갑고 딱딱할 거라 생각했는데 선배님, 팀장님, 대표님까지 친근하고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어 주셔서 좋았어요.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팀장님 생일 파티예요. 점심식사 후 케이크를 먹으면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그날 한층 가까워진 것 같습니다.

윤해인 다양한 업무를 해볼 수 있었고, 그래서 PR을 전반적으로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입사 초 팀장님과 단둘이 점심을 함께한 적이 있습니다. 편안하게 대화를 이끌어 주셨고 회사 생활의 고민도 들어주셔서 적응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됐어요. 팀장님께 너무 감사한 마음입니다.

인턴 보머가 리더십 보머에게 묻다

회사 내 커뮤니케이션,

나아가 고객사와의 커뮤니케이션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가요?

김수연 키포인트로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 일의 효율과 결과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보고할 것, 논의할 것, 대안으로 나눠 생각하고 소통하는 것이 중요해요.

최하나 모르면 물어보기! 정보가 정확하지 않거나 파악이 채 되지 않은 채 컨설팅하기보다 애매하거나 헛갈릴 뻔 한 번 더 확인하고 넘어가는 것이 서로에게 좋아요.

김은영 신뢰와 정성이에요. 작은 허물을 덮을 수 있는 큰 힘이 되거든요.

박준형 상호간의 신뢰. 함께 일하는 사람을 믿고 의지할 수 있으면 불필요한 소통이 사라지고 시너지가 생깁니다. 결과가 더 좋아지고 보람도 느낄 수 있죠. 대외적으로도 신뢰가 쌓이면 몇 년이 지나도 기억해주는 클라이언트와 보낸 자료를 더욱 신경 써서 봐주는 기자들이 생겨요.

김자영 고객사와의 업무 커뮤니케이션은 설득력이 제일 중요해요. 우리가 제안하는 프로그램이 늘 획기적이고 새로운 순 없거든요. 우리가 왜 이 프로그램을 해야 하는지 잘 설명하고 설득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역할입니다.

김용지 서로 이해 수준을 맞추는 것과 상호 존중이 필요해요. 고객사는 물론 우리 내부의 구성원 간에도 배경지식, 알고 있는 정보 등이 서로 달라요. 따라서 서로 이해 수준을 맞추려 노력해야 제대로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습니다. 예의를 갖춰 말하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목표를 공유하는 만큼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모두 가졌으면 좋겠어요.

슬기로운 직장 생활을 위해

사회 초년생에게 주시고 싶은 조언은?

윤지혜 녹록지 않는 직장생활에서 재미를 찾는 게 중요해요. 하는 일에서, 혹은 함께 일하는 동료, 선배들에게서 말이예요. 처음부터 ‘아, 이걸 내 천직이야!’ 싶은 일을 찾아내는 건 구운 밤에서 싹을 틔우는 일만큼이나 어려워요. 지금 하는 일에서, 또 함께하는 사람에게서 즐거움의 요소를 찾아보세요!

전은정 저도 처음엔 ‘내가 잘하고 있나?’, ‘이 일이 나에게 맞는 건가?’ 하는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때 스스로 생각하는 시간을 갖는 것도 필요하지만, 함께 일하는 선배들에게서 피드백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 어떻게 보면 내가 모르는 내 모습을 제일 잘 아는 사람들이니까요. 많이 도전해 보세요! 실수나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런 도전의 시간이 여러분을 더 단단하게 성장시켜줄 겁니다.

김명숙 마음을 터놓고 진심으로 소통할 수 있는 동료를 만들어 친밀한 관계를 맺어 보세요. 저도 과거에 미흡한 면을 혼자 해결해 보려 많은 시간을 허비했습니다. 그러다 선배님의 짧은 조언 한마디 덕에 문제를 금방 해결한 경험이 있어요. 희로애락을 함께 공감하며 일하는 동료들이 있어 날마다 감사하고, 즐겁고, 또 신나는 회사생활을 보낼 수 있습니다. 날마다 축제! ^^



문윤희 · 송재훈 기자

나는야 비전공자 ... '성취감과 재미' 두 토끼 잡아 헬스케어 산업에서 비전공자 기자로 살아남기

글 이정인 · 양효진

의학용어는 대체로 어렵다. 임상 데이터는 복잡하다. 그래서 헬스케어 산업은 비전공자들에게 일종의 넘사벽이다. 하지만 두려움을 떨치고 일어난 비전공자들이 헬스케어 업계를 활보하고 있다. 헬스케어 미디어에도 있다. 헬스케어 전문기자들이다. 베테랑 헬스케어 전문기자 두 분을 캐틴에 초대해 비전공자로서 똥똥하는 노하우를 직접 들어봤다.



뉴스더보이스 문윤희 기자 (국어국문학 전공)

“ 헬스케어는 우리 삶과 떼어 수 없는 영역이에요. 당당하게 도전하면 가치 있는 성과를 얻게 될 겁니다. ”

2000년 '한국국제신문사'를 시작으로 다양한 미디어를 거쳐 헬스케어 전문지 '메디팜스투데이'에서 10여년 간 일했다. 지난 9월 '뉴스더보이스'에 합류한 문 기자는 헬스케어 소식 외에도 '문 기자가 말한다' 등의 수필 형식 코너를 통해 다양한 기사를 제공하고 있다.



의약뉴스 송재훈 기자 (컴퓨터공학 전공)

“ 비전공자라고 해서 지레 겁낼 거 없어요. 꾸준히 시간을 투입하면 자기 무대로 만들 수 있습니다. ”

잡지사에서 10년 간 근무한 후 헬스케어 전문지 '의약뉴스'에 입사했다. 지난 10여년 간 정부기관과 제약 산업을 두루 담당했다. 학술에 대한 깊이 있는 관점과 정확한 데이터 분석이 트레이드 마크인 베테랑이다.

Q1. 헬스케어 전문지에서 일 하시게 된 계기가 뭔가요?

문윤희 기자 (이하 문) 처음 일을 시작했을 땐 취업이 불안한 시대였어요. 국문학 전공에 글쓰기를 좋아해 기자가 됐습니다. 헬스케어 산업에 여전히 몸담고 있는 건 여러 번 탈출을 시도했지만 결국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웃음) 배운 도둑질이 몸에 밸 때쯤 메디팜스투데이에 입사해 헬스케어 영역을 접하게 됐습니다. 기자 경력은 오래됐지만 실력이 모자라 공부하며 일해요.

송재훈 기자 (이하 송) 하드웨어가 좋아 컴퓨터공학과에 들어 갔는데 알고 보니 소프트웨어를 배우는 과였어요. (웃음) 전공 공부에 별 흥미를 못 느껴 외도한 셈이죠. 본래 기자가 목표는 아니었는데, 어렸을 때부터 야구를 좋아했고 글쓰기가 취미라 스포츠 기사를 좀 썼습니다. 대학시절에도 과, 동아리 소식지를 만들었어요. 글쓰기를 좋아했지만 콤플렉스가 있었기에 직업이 될 줄은 몰랐어요. 덕업

일치로 하는 일에 매우 만족하지만, 저도 문 기자님처럼 헬스케어 산업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시작했습니다.

Q2. 헬스케어 전문 기자로 일하면서 어려웠던 게 무엇인가요?

문 과거 교육잡지, 정치 전문매체 등에서 사회 전반에 관한 기사를 썼어요. 헬스케어 업계 입문 후 식약처와 제약 · 산업을 담당 했는데, 취재원들이 기자에게 말을 하지 않는 것이 미덕인 분위기 었습니다. 또 헬스케어 분야는 공부하지 않으면 알기 어려운 것들이 많았어요.

송 헬스케어 산업에 대해 잘 몰라 처음엔 힘들었어요. 이전 직장에서 시장조사를 담당하면서 정부 계약법을 많이 다뤘기에 약가 고시 같은 것은 막연하나마 알았습니다. 하지만 헬스케어 산업 전반 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죠.

Q3. 베테랑 기자로서 지금도 어려운 게 있다면, 뭔가요?

송 제가 보기보다 굉장히 내성적이예요. 지금도 취재원들에게 먼저 연락하는 일이 거의 없을 만큼 사람 만나는 것이 굉장히 힘들 니다. 그렇다 보니 통계 기사를 많이 썼습니다. 공대 출신이라 숫자가 편했고요. 그래서 지금도 기계적인 글 말고 좋은 글을 쓰기 위해 항상 고민합니다.

비전문가로서의 고민은 내가 과연 유익한 기사를 쓰고 있나 하는 거예요. 단적으로 학회 발표 내용을 새롭고 유익하다고 생각해 나름대로 신나게 기사로 쓰고 나서 전문가가 볼 때 유치한 내용은 아닐까 하는 고민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제가 오해해 기사를 쓰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전문분야가 아니다 보니 저로서는 이 점은 항상 어렵습니다.

문 오늘도 느끼지만, 송 기자님은 겸손이 지나치세요. 기자는 글을 쓰는 게 업이라 어떻게 쓸 것인지 항상 고민합니다. 더불어 내가 업계를 잘 파악하고 있는지, 현장 상황의 맥을 잘 잡고 있는지 돌아 보죠. 신약이 출시되면 의사들이 공부를 하듯이 기자도 공부해야 합니다. 다른 분야에 조금 관심을 기울이다 보면 어느 새 뒤처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항상 공부한다는 건 부담이자 즐거움입니다.

Q4.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어떤 노력들을 하셨나요?

문 초반 3년 동안 주말마다 도서관에서 공부를 했어요. 인터넷 검색 시스템이 잘 돼 있지 않던 시절이라 의대 · 간호대에서 배우는 약리학 전공책을 읽었습니다. 그 후 질환별로 어떤 치료제들이 있는지 공부했고요. 학생들 사이에서 눈치 보며 공부하는 게 조금 힘들었죠. (웃음)

송 저는 적극적으로 공부하는 성향이 아니라 따로 공부하기보다 귀를 열어 놓으려 노력했습니다. 현장에 가면 선후배 기자들 옆에서 잘 모르는 이야기도 무작정 들었죠. 철면피처럼, 주위들다가 대화에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궁금한 게 있으면 기자간담회 때처럼 기회가 있을 때마다 질문합니다. 판이 벌어진 현장에서 최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Q5. 송 기자님은 학회와 임상 데이터 관련 기사를 정말 잘 쓰시는 것 같습니다. 비결이 뭔가요?

송 잘 쓰고 싶은 욕심이죠. 헬스케어도 세부적으로는 분야가 많고 제가 쓰는 분야는 극히 일부입니다. 저는 다국적제약사를 주로 다루는데 전문지는 약에 대해 쓰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약은 어떤 효과와 차이가 있고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포커싱 하려 노력합니다. 공대 출신이라 표와 수치에 좀 더 집중하는 경향도 있는 것 같네요.

한 가지 더, 시간이 해결해준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자연히 알게 된다는 믿음이지요. 급하게 공부하기보다, 자연스럽게 습득하는 방식의 공부에 더 익숙해졌어요.

문 같은 기자로서 송 기자님의 존경스러운 모습이에요. 자신의 단점을 알고 극복하려 꾸준히 노력하는 점. 이런 기자들이 사실 많지 않거든요.

송 갑자기 부담스럽게 왜 이러시나요. (웃음)

Q6. 문 기자님은 메디팜스투데이 시절부터 '문 기자가 말한다' 코너 등을 통해 개인적인 이야기도 기사로 많이 쓰셨는데요. 그런 기사를 쓰게 된 계기는 무엇이고, 개인적으로 얻는 게 뭔가요?

문 아이를 늦게 낳았고 뒤늦게 육아와 직장생활을 병행하다 보니 주변의 일하는 엄마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사는지 궁금했어요. 상황이 나와 별반 다르지 않을 텐데 정말 대단하다고 느꼈고요. 그래서 나의 경험을 재미있게 풀어보는 글을 써보면 어떨까 했는데 때마침 몸담은 회사의 콘텐츠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죠. 피알봄 도 전은정 대표님을 포함해 직장맘이 많잖아요. 다들 전쟁 같은 일과를 반복하는데, 회사에서는 굉장히 우아하고 프로페셔널하죠. 엄마이자 직장인으로서 치열하게 살아가는 하루하루를 알리고 싶었어요. 그런데 의외로 반응이 좋았고, 엄마들의 지지도 받았죠. 같은 시대를 사는 직장맘들의 고충을 사회적으로 더 편하게 공유 하는 분위기가 형성됐으면 좋겠어요. 더불어 지금은 기자가 기사만 쓰는 시대가 아닌 것 같아요. 더 다양한 방면에서 자신의 생각과 경험을 대중과 나누는 게 좋지 않을까요?

Q7. 다른 분야의 기자 또는 아예 다른 직업으로 전환하고 싶은 생각이 드신 적은 있나요?

송 지금 일이 정말 만족스러워 다른 직업 생각은 없습니다. 저는 기자라는 직업 자체가 좋아요.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건 천운 이라고 생각해요. 기자라는 직군 안에서 선택한다면 스포츠 기자를 해보고 싶긴 합니다. 이미 늦긴 했지만. (웃음)

문 저는 다른 직업으로 전환하고 싶다는 생각을 몇 번 했어요. 헬스케어 분야는 계속 공부해야 하고 그러지 않으면 뒤처진다는 것을 스스로 깨달았을 때였죠. 임계치에 도달한 느낌이었죠. 더 편한

업계로 옮길까 하는 고민을 했고, 30대에 실제로 기자를 그만두고 마케팅 회사와 홍보 회사를 다녀본 적도 있어요. 그런데 기자가 천직인지 다 잘 안 풀렸어요. 지금은 새 영역에 도전하는 건 좀 부담이 돼요. (웃음) 최근 환자 전문 매체로 옮겨 이제 환자 입장에서 일해야 하는데 이 일도 새로운 영역이라고 생각해요. 만일 헬스케어 전문 기자가 되지 않았다면, 글을 쓰는 다른 직종에 종사하지 않을까 싶어요.

Q8. 헬스케어 전문기자 경력이 10년이 넘는 데도 취재에 대한 열정이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열정의 원천 또는 동력은 뭔가요?

송 이 산업의 특징인데, 계속 새로운 것을 던져준다는 점이에요. 개념부터 새롭게 배워야 하니 어쩔 수 없이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가장 큰 동력은 콤플렉스입니다. 내가 잘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열심히 하게끔 만들어요. 어쩌면 기자간담회처럼 겉으로 보이는 데서 열정적이라 모두들 그렇게 생각하시는 건지도 몰라요. 뒤에서는 그렇게 열심히 안 합니다. (웃음) 또 저희 세대 특유의 애매한 책임감 같은 게 있는데, '내가 과연 밥값을 하고 있나' 자문해 봅니다. 그런 생각의 연장선에서 학회나 간담회 자리에서 내가 밥값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열심히 하게 됩니다.

Q9. 헬스케어 전문기자가 되길 잘했다고 느낀 순간은 언제 인가요?

문 헬스케어 업계도 불합리한 이른바 갑을 관계가 있어요. 의사와 약사, 약사와 도매사, 제약사와 정부, 심지어 의사와 환자 간의 관계도 자칫 갑을 관계가 될 수 있죠. 이런 관계에서 불합리하게 발생하는 문제들을 주의 깊게 봅니다. 갑의 횡포나 부당함을 기사로 지적해 이를 바로잡으려는 움직임을 이끌어냈을 때 '내가 이 업계에서 그냥 밥만 얻어먹는 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뿌듯합니다.

Q10. 최근의 최대 관심사는 뭔가요?

문 환자 기반 매체로 옮긴 지 얼마 안 돼 환자의 이야기를 기사에 잘 녹여내는 것이 숙제예요. 어떻게 하면 잘 녹일 수 있을지 고민 중입니다. 아이를 키우는 워킹맘으로서 최대 관심사는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추는 거예요. 아이가 건강하게 잘 자라도록 돌보고 같이 놀러 다니기 위해 일과 삶을 잘 병행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송 다국적 제약사를 담당하는 기자는 학술 쪽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학술 관련 공부를 할 기회를 만들려 코로나가 유행하기 전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가장 해보고 싶은 일은 해외 학회 발표 자료를 모아 국내 기자들과 공부하는 자리를 마련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게 불법이에요. 식약처나 국회를 통한 해결, 교수들에게 부탁해 공론장을 마련하는 길 등 여러 해결 방법을 놓고 고민 중인데, 관심 없는 기자들도 많아 제대로 추진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시작을 못하고 있죠. 코로나가 지나가면 답을 찾아보려 합니다.

Q11. 코로나의 영향이 가히 전방위적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취재 과정에서 겪는 애환은 뭔가요?

송 취재원과 접촉할 기회가 줄어든 것이죠. 교수들과 직접 만날 기회가 전부 비대면으로 바뀌어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힘들어요. 온라인 기자간담회, 온라인 인터뷰를 하면 확실히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요. 일례로 인터뷰 질문을 텍스트에 의존하게 돼 의도와 다르게 전달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런 경우 현장에서는 질문을 수정할 수 있지만 온라인 소통일 땐 많은 경우 잘못 전달된 질문에 대한 답을 그냥 들을 수밖에 없어요. 의문이 생겨 질문했는데 의문이 해소되지 않은 채 들은 대로 기사를 쓰는 거죠.

문 저도 같은 생각인데, 취재의 현장성이 떨어져 기사를 쓸 때 제약이 있습니다. 취재원을 만나 직접 얘기를 해야 다양한 얘기를 들을 수 있거든요. 온라인으로 열리는 세미나, 미디어 데이 같은 행사에선 얼굴 보고 이야기할 때와 달리 답변이 구체적으로 나오기 어려워요. 대체로 질문에 대한 아주 명확한 답과 정제된 입장만 얻게 되죠.

Q12. 특종기 등 재미있는 취재 에피소드를 소개해 주세요.

송 문운희 기자님을 포함해 좋아하는 기자 다섯이 한 달 동안 법원에서 뺨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 무언가 한다는 것 자체가 좋았고, 재밌었어요.

문 그때 매일 법원으로 출근해 법원 동향에 대해 썼고, 업계에 반향도 있었죠.

송 찬 바닥에 앉아 보도자료 정리해 기사 쓰고 마감 기사 취재 하느라 고생했는데 정작 성과는 별로 없었다는 생각입니다. 성과는 크지 않았지만 좋아하는 사람들과 계속 함께 있는 것 그 자체가 좋았어요.

문 업계의 부당함에 대해 기사 쓴 일들이 재밌는 에피소드로 남아 있어요. 그 바람에 미움을 받았습시다. 자세한 내용은 기사로 나가면 안될 것 같네요. (웃음)

Q13. 미디어는 쉽고 정확한 글쓰기가 요구되는 분야입니다. 기사 글쓰기를 잘하는 데 도움이 되는 팁이나 나름의 훈련법을 소개해 주세요.

문 많이 읽고, 많이 생각하고, 그리고 많이 써봐야 해요. 사실 모든 글쓰기의 기본이죠. 우선 책을 많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글 쓰는 사람들에게 피천득의 수필을 읽으라고 권해요. 다음으로 사색이 꼭 필요해요. 사물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 생각해 보는 게 자기 자신을 알아가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원하는 것을 스스로 알고, 자신에 대해 스스로 판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요즘은 주로 동영상을 보는 시대가 됐는데 그럼 사고할 수 있는 시간이 아무래도 부족하죠. 그래서 저는 멍 때리는 것을 주변에 많이 권합니다. 스스로에게 생각할 기회를 주는 것이거든요. 또 일기도 좋으니 스스로 글을 쓰고 생각하는 시간을 많이 가져 보세요.

송 '기사는 쉽다'는 전제에 대해 기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립니다. 기사는 초등학교 5학년이 읽을 수 있을 만큼 쉽게 써야 한다는 기자들이 있는가 하면, 헬스케어 기사는 학술적인 내용을

많이 다루는데 어떻게 초등학교 5학년이 읽을 수 있는냐고 얘기하는 기자들도 있어요. 양쪽 다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무조건 쉽게 쓰는 게 능사일까 하는 의문이 들어요. 전달을 잘하려면 쉽게 쓰는 게 맞지만 너무 쉬우면 내용을 잘 아는 사람들은 유치하다고 받아들일 수도 있거든요. 결국 독자 수준에 맞춰야 하고, 양자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으려면 고민할 수밖에 없어요. 대신 말하고자 하는 바를 명확하게 써서 쉽게 전달하기 위해 저 나름대로 노력합니다. 글을 명확하게 쓰는 방법은 무엇보다 문장을 짧게 만드는 거예요.

Q14. 기자는 나에게 '잘 하는 일'인가요? 아니면 '좋아하는 일'인가요?

송 좋아하는 일입니다. 워낙 좋아하는 일인데, 흐르고 흘러 어찌 다 진짜 기자가 됐다는 것 자체를 천운이라고 생각해요.

문 저는 무승부요. 할 수 있는 일이었는데 오래 하다 보니 잘 하는 일이 됐고, 계속 하다 보니 흥미가 생겨 좋아하는 일이 됐습니다.

Q15. 오랜 기간 헬스케어 업계에서 일한 비전공자 선배로서 이 업계에 뛰어들고자 하는 비전공자들에게 어떤 조언을 주시겠습니까?

송 너무 겁내지 않아도 됩니다. 처음엔 너무 낯설었고, 첫 기자 간담회에 갔을 땐 하나도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의학 용어이거나, 의학 용어가 아니라도 다 영어라 정말 조사만 우리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분야든 그 분야에 뛰어들려면 당연히 공부가 필요해요. 공부도 했지만, 결국 시간이 흘러 자연스럽게 체득하게 됐죠. 그러니 미리 겁낼 필요 없어요. 시간이 필요한 분야인 건 맞고, 취재원을 떠나 주변의 선배 기자들에게서 배울 수 있는 것도 많아요. 그렇게 배우다 보면 어느 새 자기 것이 됩니다.

문 이쪽 업계 종사자로서 의사·간호사·약사 자격증이 없으면 사실 비전공자죠. 결국 대부분 비전공자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 만큼 비전공자도 충분히 도전할 수 있는 영역이죠. 자신의 가능성을 한 번 시험해 보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잘 맞을 거 같아요. 공부하는 것을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씩 배우면 된다고 생각하세요. 또 공부하고 싶다고 손을 내밀면 잡아주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사실 어느 분야에 종사하든 학습은 피할 수 없는 숙제일 거예요. 헬스케어는 직업인으로서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분야이고, 직접 경험해 보면 얼마나 재미있는지 알게 됩니다. 무엇보다 우리 삶과 뗄 수 없는 영역이죠. 도전만 한다면 가치 있는 성과를 거두게 될 거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코로나로 지친 당신, 떠나라!

글 양효진 · 박은빈

‘위드 코로나’ 시대라지만, 자유로운 여행은 여전히 쉽지 않다. 여행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달랠 겸 여행을 즐기는 보머들의 ‘인생여행지’를 꼽아봤다. 서울 도심부터 지구 반대편 라틴 국가까지! 잘 킵해 뒀다 코로나가 종식되면 훌쩍 떠나보자.

유기환 대리의 ‘멕시코’

밴쿠버 여학연수 당시 멕시코를 여행한 적이 있습니다. 살아오면서 처음이자 유일하게 몸소 체험한 라틴 문화 국가인데, 특유의 활기찬 분위기, 맛있는 음식 등 모든 것이 새롭고 인상깊었어요. 소칼로 광장으로 대표되는 멕시코시티 중심가는 동양인이 흔치 않아 거닐 때마다 받게 되는 시선과 관심도 은근 즐겁습니다.

명소



멕시코시티 중심부에서 차로 1시간 정도 거리의 테오티우아칸 (Teotihuacán)에 가면 피라미드가 있어요. 멕시코의 오래된 고고학 유적지 중 하나인데, 아메리카 대륙에선 가장 큰 피라미드입니다. 워낙 관광지로 유명한 곳이라 기념품 파는 상점도 많고, 비용을 들여 데킬라 투어를 즐길 수도 있습니다.



추천음식

멕시코 사람들이 조식으로 즐기는 간식 츠러스. 멕시코시티엔 1935년 개업한 지역 최고의 츠러스 맛집 엘 모로(EI Moro)가 있습니다. 4년 전 찾았을 때 기다란 츠러스 4개와 달달한 핫초코 세트 메뉴가 우리 돈으로 단돈 4300원이었습니다. 하루 일정을 시작하기 전 당을 보충할 수 있는 훌륭한 음식이었습니다.

멕시코시티는 영어로 의사소통이 잘 안 되는 사람이 많습니다. 여행 중 대사관에서 인턴으로 근무하는 한 여성과 시간을 보낸 적이 있는데, 편의점에서 유창한 스페인어로 휴대폰 유심을 대신 구매해주던 모습이 너무 멋있었습니다. 그만둔 지 오래됐지만, 이 ‘사건’을 계기로 스페인어에 관심을 갖고 기초반 수업을 듣기도 했죠.

추천코스

대중교통 이용이 번거롭게 느껴진다면 시티 투어 버스 코스를 추천합니다. 여느 도시처럼 지붕이 없는 2층 버스가 주로 운행되는데, 이국적인 풍경 덕에 버스 좌석에 편히 앉아 주위를 둘러보는 것만으로도 좋은 경험이 됩니다. 당시 140 페소(한화 8000원)라는 저렴한 비용으로 1시간이 넘는 드라이브를 즐겼습니다.

송경은 사원의 ‘제주 올레길’

많은 분들이 휴식을 위한 여행지로 제주도를 선택하지만, 색다른 도전 삼아 제주도 구석구석의 매력을 알고 싶다면 올레길을 추천합니다. 여행의 재미는 목적지를 향해 가는 과정에서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올레길을 걸으면 돌담길, 어촌, 조랑말, 굴나무, 도민들의 삶을 직접 보고 느낄 수 있습니다.



명소

가장 최근에 다녀온 올레길 5코스를 추천합니다. 난도가 높지 않아 트레킹다운 ‘모험’을 원한다면 적합한 코스입니다. 서귀포 남단을 따라 뻗은 길로, 10~15분마다 산과 바다를 번갈아 마주하게 돼 쉽게 지치지도, 지루하지도 않습니다. 바닷가 바위 코스는 조금 위험할 수 있지만 모험과 탐험의 맛을 한껏 느낄 수 있습니다.



추천음식

흑돼지 오겹살이 아닌 색다른 고기를 먹어보고 싶다면 서귀포 올레시장의 ‘뽕살집’을 추천합니다. 뽕살, 천겹살, 비단살, 꽃살 등 평소 먹어보기 어려운 돼지 특수부위를 맛볼 수 있습니다. 부위마다 맛이 다르고, 비계마저 쫄깃하고 식감이 부드러워요.



추천코스

제주 올레 홈페이지에서 올레길 코스의 길이, 난이도, 교통편, 소소한 팁 등을 자세히 알아볼 수 있습니다. 출발점과 도착점은 모두 제주도의 명소라 어렵지 않게 찾아갈 수 있죠. 또 올레길 코스들은 갈림길마다 방향 지시 리본, 조랑말안내판, 화살표 등이 있어 길을 잃을 위험은 없습니다.



걷는 것만으로도 좋은 올레길이지만 특별한 추억을 쌓고 싶으시다면 ‘올레 패스포트’ 구입을 추천합니다. 코스별 지도를 보고 찾아다니며 완주 스탬프를 찍는 재미가 쏠쏠하답니다. 저는 올레길 총 26코스 중 4코스를 완주했어요. 남은 22코스를 마저 완주하려면 앞으로 몇 년이 더 걸릴까요?



김종찬 대리의 '홍콩'

재작년 여름에 다녀온 홍콩이 떠오릅니다. 동양과 서양, 과거와 현재가 어우러져 이색적인 정취가 물씬 나던 풍경이 인상 깊었습니다. 골목 구석구석 모두 추억으로 남았지만, 단 하나를 꼽자면 단연 침사추이에서 바라본 홍콩의 야경이죠. 아, 음악 틀어놓고 친구들과 웃고 떠든 홍콩에서의 여름밤이여!



종찬 대리의 홍콩 여행 꿀팁

- 1. 여행하기 좋은 계절: 홍콩은 역시 여름! (하지만 다른 계절도 궁금하네요)
- 2. 이럴 때에 딱!: 휴양지가 아닌 곳으로 여행 가고 싶을 때
- 3. 같이 떠나면 좋을 사람: 누구든 같이 가고 싶은 사람들
- 4. 이걸 꼭 사야 한다/해야 한다: 기념품은 모르겠고, 많이 먹고, 많이 웃고, 많이 찍기!

정다미 사원의 '삼청동 골목길'

자주 가는 삼청동 골목길과 북촌 한옥마을 산책로 그리고 계동 골목길을 추천합니다. 답답하고 무료한 일상을 잠시 벗어나고 싶을 때, 좋은 사람들과 아무 생각 없이 걸으면 마음이 편안해져 자주 걷습니다. 최근 서울공예박물관도 오픈했고, 골목 구석구석에 오랜 역사를 간직한 채 끊임없이 변화하는 가게가 많아요. 그 덕에 먹거리와 볼거리가 더 다양해져 매번 갈 때 마다 새롭더라고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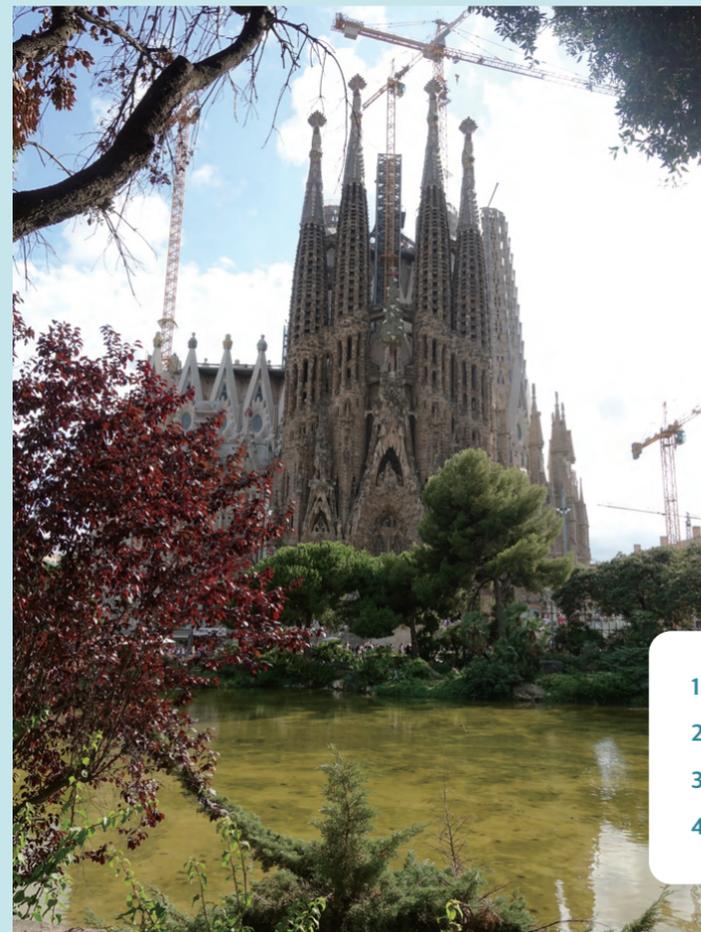


다미 사원의 삼청동 순례 꿀팁

- 1. 여행하기 좋은 계절: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고 단풍이 드는 가을
- 2. 이럴 때에 딱!: 오늘 어디든 당장 걷고 싶을 때, 마음이 쓸쓸해 다양한 먹거리로 채우고 싶을 때, 생각 정리가 필요할 때, 인스타 감성 흠뻑 느끼고 싶을 때
- 3. 같이 떠나면 좋을 사람: 찐친 또는 인생샷 잘 찍어주는 친구
- 4. 이걸 꼭 사야 한다/해야 한다: 기념품보다는 먹거리로 위를 채우는 게 더 좋습니다.

홍혜빈 사원의 '바르셀로나'

스페인의 바르셀로나. 유럽 여행의 마지막 도시였는데 따사로운 햇살과 바다, 맛있는 건축물들에 빠져 여기에 살고 싶다 생각했어요. 무엇보다 자전거도로가 정말 잘 되어 있어, 바닷길을 따라 자전거를 타면서 행복했습니다. 유럽 여행을 하는 동안 딱히 맛있게 먹은 음식이 없었는데 스페인은 달랐어요. 해산물 요리도 맛있고 과일도 정말 달아 맛있었죠! 가우디 투어는 무조건 추천입니다!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의 신비롭고 아름다운 분위기는 지금도 잊혀지지 않아요.



혜빈 사원의 바르셀로나 여행 꿀팁

- 1. 여행하기 좋은 계절: 여름~가을
- 2. 이럴 때에 딱!: 마음의 여유가 필요할 때
- 3. 같이 떠나면 좋을 사람: 가족, 친구 다 좋지만 혼자 가면 Best!
- 4. 이걸 꼭 사야 한다/해야 한다: 과일을 많이 먹고 오세요!



기업문화로 자리잡은 복지 프로그램들

글 양효진 · 김해원

헬스케어 전문 PR 컨설팅 회사 피알봄엔 나름의 복지 프로그램이 있다. 이들은 보머들의 몸 건강과 마음 건강을 챙기는 봄만의 기업문화로 자리잡았다.

사내 미화 조퇴 이벤트 열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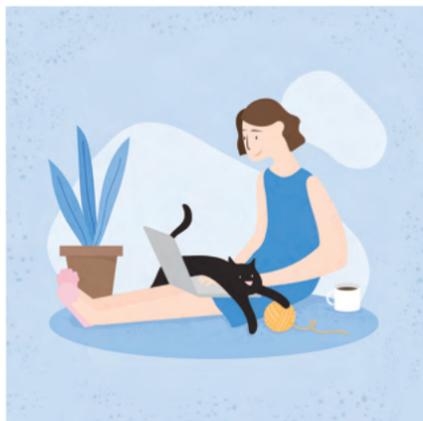
지난 5월 보머들은 '쾌적한 사무공간 만들기' 째깍 조기 퇴근 이벤트에 참여했다. 일부 구성원들은 퇴근을 미루고, 책상 및 주변 정리에 나섰다. 민거나 말거나, 이쯤 되면 이른 퇴근보다 명예로움을 더 중시하는 것일 수도 있다. 심사 당일 사무실은 마치 처음 입주했을 때처럼 반짝반짝 빛났다. 심사 결과 총 6팀 중 푸짐하게도 세 팀이 우승팀으로 선정됐다. 이들 우승 팀은 무려 '2시간' 조기 퇴근이라는 '포상'을 받았다. 열화와 같은 구성원들의 성원에 힘입어 사내 미화 조퇴 이벤트는 하반기에도 있다고 한다. 올해가 가기 전 한 번 더 했으면 하는 건 기자만의 바람일까?



이미지 출처: 카카오톡 이모티콘

재택근무에, 재택 장려금도

코로나19가 금방 지나갈 줄 알았다. 아니 그러길 바랐다. 그런데 점차 심각해져 회사 주변 백화점과 빌딩에서 확진자가 나왔다. 심지어 건물이 폐쇄되는 일이 벌어졌다. 구성원들의 안전을 위해 보머들은 잠정 재택근무에 돌입했다. 메신저로 출퇴근 보고를 했고, Zoom과 Teams를 통해 업무를 이어나갔다. 회사는 재택 장려금을 지급해 구성원들을 독려했다. 기자를 비롯해 일부 구성원들은 재택 장려금으로 평소 먹고 싶었던 음식을 시켜 먹었다. 어떤 보머는 성능이 좋은 필기구나 헤드셋을 구비했다는 후문이다. 우리는 저마다 각자의 방법으로 '격리 생활'의 어려움을 슬기롭게 이겨냈다.



'한우와 함께' 추석 이벤트

보머들이 명절을 기다리는 건 단지 긴 연휴 때문만이 아니다. 지난 추석엔 연휴를 앞둔 일주일 간 추첨을 통한 비대면 선물 이벤트가 진행됐다. 추첨을 통해 주는 선물은 프리미엄 한우 세트부터 와인의 교과서라 불리는 텍스트북 와인까지, 몇 년간의 추적 관찰을 통해 보머들이 가장 선호하는 상품들로 구성했다. 가장 인기가 좋았던 상품은 단연 한우. 한우 당첨의 영광은 최하나 팀장, 김지영 팀장, 김종찬 대리에게 돌아갔다. 기자는 벌써부터 설 연휴 이벤트가 기다려진다.



수요일은 빨간 장미를? 오우 노우 건강 간식!

수요일은 아침식사를 거른 보머들이 기다리는 간식의 날. 보머들은 수요일이면 건강 간식을 맛볼 수 있다. 메뉴는 선식, 제철 과일, 갓 구운 베이글 등! 몸도 마음도 든든한 간식의 날은 출근길이 더 즐겁다. 이참에 항상 센스 있고 맛있는 간식을 준비해 주시는 경영지원실 경운님께 감사를 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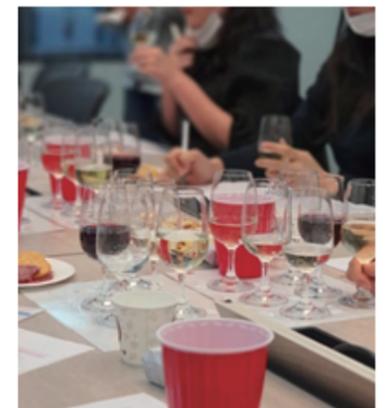


꽃향기에 취해 볼까? 와인 향에 젖을까?

사무실은 일만 하는 공간이 아니라구! 피알봄은 보머들의 취미생활 및 자기계발 지원을 위해 틈틈이 오프라인 클래스를 연다.



올해는 사회적 거리 두기 상황 때문에 큰 규모로 열지는 못했다. 하지만 삼삼오오 와인 클래스와 꽃꽂이 클래스를 즐겼다. 그 덕에 어느 날 퇴근 후 사무실에 꽃향기와 술 향기(?)가 가득했다는 후문.



글 김종찬

건강 유튜브 채널 '랜선진료소' 지난 5월 개설



우리 회사가 의학·건강 정보를 폭넓게 전하는 유튜브 채널 '랜선진료소'를 지난 5월 24일 열었다. 랜선진료소는 피알봄이 직접 기획·운영하며 네 개의 코너로 구성돼 있다.

▲ '슬기로운 건강생활'은 전문의들이 출연해 건강과 질환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주는 코너다. ▲ '닥수닥'은 두 의사가 출연해 성형 등 다소 부드러운 주제의 대중적인 건강 정보를 다룬다. ▲ '이필재의 미래의학'은 우리 회사에서 라이팅 교육을 담당하는 인터뷰 전문가 이필재 고문이 출연해 최신 의과학 기술과 치료법을 주제로 전문가와 나누는 대담이다. ▲ '공감인터뷰'는

전은정 대표가 출연해 환우회 회장들과의 대담을 통해 환자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는 코너다.

우리 회사는 랜선진료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사무실에 스튜디오를 만들었다. 또 공중파 방송 채널에서 시사·교양 프로그램 작가로 20년 경력을 쌓은 신해진 작가를 영입해 콘텐츠의 질을 높였다.

전은정 대표는 "랜선진료소는 믿을 수 있는 의학, 건강 정보를 환자 눈높이에 맞춰 보다 쉽게 전달하기 위해 기획했다"며 "앞으로도 의미 있는 의학, 건강 정보를 제공하는 채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하나 부장, '2020년 기자들이 뽑은 헬스케어 홍보인상' 수상

최하나 부장이, 다국적제약사출입기자모임이 뽑은 '2020년 헬스케어 홍보인(에이전시 부문)'에 선정돼 올해 2월 수상의 기쁨을 안았다. 다자사출입기자모임은 매 해 소속 기자들이 투표를 통해 '올해의 헬스케어 홍보인'을 선정한다. 올해는 2019년에 이어 2회째 개최된 시상으로 제약사와 에이전시 부문으로 구성됐다.

기자모임 어윤호 간사(데일리팜 기자)는 "헬스케어 산업과 정책 환경 전반에 대해 높은 이해를 토대로 만족도 높은 PR 컨설팅을 제공하는 한편 취재원으로서 매체에 심도 있는 정보를 공급해 왔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최 부장은 "함께 일하는 기자분들이 선정해 주신 상이라 더욱 뜻깊고 감사하다. 이번 수상은 단지 제 역량만이 아닌,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팀원들의 노력과 성과가 함께 빛났기 때문에 받을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피알봄은 다양한 역량을 지닌 좋은 사람들이 모인 조직인 만큼, 지금까지 고객사가 원하는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내·외부적으로 즐겁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미스터리어스 박'과의 점심, 기대해 주세요

글 신지훈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재택근무가 일상이 됐다. 재택근무는 일하는 공간뿐 아니라 우리 삶에 큰 변화를 불러왔다. 단적으로 재택근무 체제의 사내 커뮤니케이션은 주로 전화 혹은 줌, 팀즈를 이용한 비대면 접촉으로 이뤄진다. 오랜 재택근무로 일명 '코로나 블루'(코로나 19와 '우울감(blue)'이 합쳐진 신조어)를 호소하는 직장인도 생겨났다.

2019년 미국의 한 회사가 재택근무를 하는 직장인 2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일이 있다. 이 조사에서 "재택근무에서 가장 힘든 점이 무엇이나"는 질문에 응답자의 19%가 '외로움'을 꼽았다.

우리 회사는 격일 출근제를 시행 중이다. 팀별로 출근하는 날이 다르다 보니 보머끼리 만날 기회가 줄어들었다. 서로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 달라는 보머들의 성화(?)에 못 이겨 봄바람이 준비했다. 보머들이 평소 가장 궁금해 하는 '미스터리어스(mysterious) 보머'는 누구일까? 미스터리어스는 '올해의 보머' 콘셉트이기도 하다. 투표에 참여한 22명의 보머 중 23%가 박정선 사원을 지목했다. **미스터리어스 박, 박정선의 미스터리를 전격 공개한다.**

회사에서 스티치뿔 뵈어, 이야기 나눌 기회가 없었습니다. 근황이 어떻게 되나요?

다른 분들처럼 재택근무에 익숙해진 삶을 살고 있어요. 집에서 일하고, 근무가 끝나면 운동을 다녀오거나 가족과 함께 영화나 드라마, 예능을 보죠. 요즘은 '골 때리는 그녀들', '유미의 세포들'을 재미있게 보고 있어요. 친구들과 게임을 즐기는 것도 하나의 여가생활이 됐습니다.

올들어 독서모임에 참여하는데, 여기서 최근에 서울대 병원 혈액 종양외과 김범석 교수가 쓴 『어떤 죽음도 삶에게 말했다』를 함께 읽었습니다. 우리 일과 관련이 깊고, 항암치료 과정과 암환자의 삶에 관한 책이라 더 기억에 남습니다.

같이 점심 먹고 싶어요. 이참에 을지로 맛집도 추천해 주시죠.

먼저 점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먼저 식사 자리를 마련 했어야 하는데..., 언제든 편하게 얘기해 주시면 출근날이 다르더라도 제가 맞추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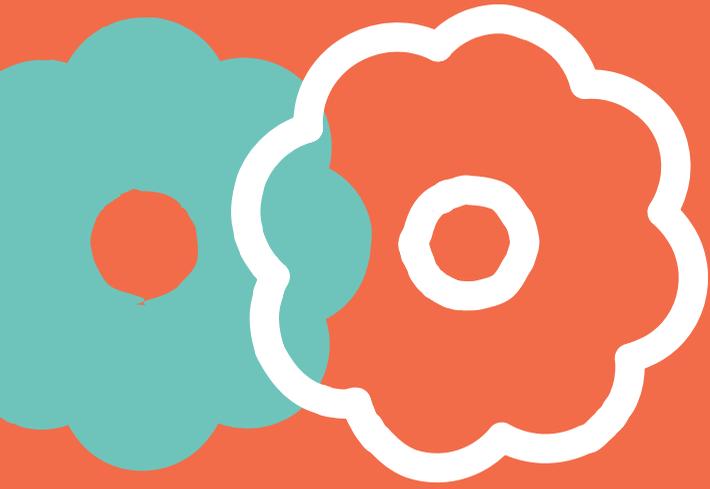
제가 맛집에 빠삭한 편이 아니라 큰 도움이 될 것 같지는 않군요. 그래도 몇 군데 추천한다면, 회사 근처에선 '우육면관', '바스버거',

종각 르미에르의 '후니도니 돈까스'가 유명하죠. 올해의 보머로 선정됐는데, 뽑아주신 분은 물론이고 다른 분과도 점심 할 기회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독어 전공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전공자로서 헬스케어 PR의 어려운 점이 뭔가요? 후배들을 위해 정선 님만의 노력법도 공유해 주세요.

헬스케어 PR은 의학분야 및 업계에서 사용하는 개념과 용어들이 낯설고 담당 제품에 대한 깊은 이해를 요해 어려울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제품별로 치료 영역이 달라 프로젝트 별로 관심을 갖고 공부해야 합니다. 전공하지 않았더라도 계속 관심을 갖고 스테디하다 보면 개념과 용어가 점차 익숙해지죠. 제품에 대한 이해 속도가 점점 빨라지는 모습을 스스로 발견할 수도 있을 거예요.

저로서 노력했던 건, 첫째 팀장님, 선배님들의 업무와 내가 한 업무 결과를 비교하면서 고칠 점을 찾았습니다. 둘째로는 업무 시작 전 팀장님, 선배님과 업무 방향에 대해 점검하고, 이때 받은 피드백을 잘 반영하려 노력했어요. 마지막으로 내 장단점을 파악해 업무에 적용했습니다. 이런 노력 끝에 결과물의 퀄리티가 크게 좋아지는 것을 느꼈고, 지금도 계속 노력 중입니다.



바바

B·M
Public Relations B·M

